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선원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주위 사람에게도 관하는 걸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일가친척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관하는 건 좀 알려주세요 않습니까?" 물으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관하는 거를, 다른 건 다 몰라도 관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죽든지 그냥 둘 아니게 공심으로 넘어라 이거죠. 공생으로. 그러면 나 따라서, 내가 하는 것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다 포용이 되죠. 관하는 걸 모르면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들간에 싸우고 잡지는 데도 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온통 집안에 별의별 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만 집이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열 집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도 돌 아니게 관한다면 자연적 이게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니깐 마음이 가라앉고 모든 있던 허물이 다 그냥 무효가 돼 버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질에 사람이,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지 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 일대사 인연 맺은 부처님

예전에 김대성이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가난하게 살 때, 어느 스님이 그 주인 집에 시주를 구하러 왔다가 배 50필을 얻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축원하기를 "하나를 베풀어 그 만배를 얻게 되니 수명이 장수하고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요"라고 했다. 대성이 이 말을 듣고 필로 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필로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를 하지 않고 또 무엇을 내세에 바라겠습니까. 제가 머슴살이 해서 얻은 밥을 보시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때십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농사짓던 밭 전부를 부처님 전에 시주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텐데 있는 것이 이것 뿐이니 어떡합니까?" 그러구선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단 말입니다. 또 스님께 말하기를 "우리 모친이 한분 계시니 좀 건강하게 잘 사시게만 해주면 됩니다" 했더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각하기를 "이젠 우리 아들이 잘 되겠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일만에 덜컥 죽어버려서 재산 전부를 시주했는데 아들이 잘 되기는커녕 그것도 3일만에 죽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에 스님네들을 불살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아들인데..." 하고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고 아들이 닳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16면으로 계속

# 삼라만상 나와 돌로 보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 여러분의 차원이 지대하게 높아진 경향이 보여요. 세계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이런 공부하는 데는 드물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같이 차원이 좀 남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모르는 이름 지을 수 없으니 만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내서 그대로 행하면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가 공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태어난 이 모습이 바로 화두입니다. 판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모습이 공생이니까요. 왜냐? 이 모습 속에다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모습이 같으면서도 달리 있고, 달리 있으면서도 한 덩어리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인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거든 내 몸을 보세요. 각자 내 몸을 보세요. 공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이기 때문에 공심으로서 조화가 된다. 또 공심으로 조화가 되기 때문에 공체로 이어진다. 또 공체인 까닭에 공용으로 화한다. 우리가 봐도 이 눈 하나가 보는 게 아니죠. 들어도 귀 하나가 듣는 게 아니구요. 이런 절대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한데 합치면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원식이나 공식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형체가 그렇게 공식으로서 같이 가게끔 했느냐. 보십시오. '공식' 하면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말합니다. 전부! 부처나 중생이나 미생물이나 모두 한데 부합해서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유전성에 의해서 영계성에 의해서 또는 인과성이나 업보성, 윤회성에 그걸리고 고생하면서 급박하게 사느냐. 바로 어머니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돌아가신 분 따로 있고 산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이 그대로 입력이 되면서 그대로 법으로 이어집니다.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대로 이어지고 잘 생각하면 잘하는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법이 그냥 만사중의 공법이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넣으면 뜻이 왜곡해서 공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상하 사방 곳곳마다 말입니다. 책도 영으로 열어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시겠죠.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다거나 한다면 '아, 아무개가 죽었구나.' 하고 알죠. 죽으면 모습이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지면 저 은하계의 별성도 모습이 없어지면서 가운데 원소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듯이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형제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간에 원소 자체는 남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불성이라고 하든지 원소라고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기 때문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틀어 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틀어 아니다

한다면 끼니때마다 내가 먹는 게 그분이 같이 먹고, 만 명이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이가 없어요. 같이 부합된 사이가 없기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 모습 달라도 우리는 공체

왜 우리가 울고불고 개탄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예요. 여자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봐 왔고 살아오는 걸 봐 왔고 그러기 때문에 생사가 항상 벌어져 있죠.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영혼 속으로 싹싹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모습이 없으니깐 부단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기 그대로입니다. 걸리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셔도 안 가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무술하는 데 사람이 급한 처지에 도달하면은 한 사람으로 보였다가 똑같은 사람이 죽 그날 여러 명으로 보인단다.

방안에서 새를 길렀는데 새가 자라 병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깐 그 새더러 하느 소립니다. "너는 왜 길을 찾아서 나오지 못하고 이 허공을 활활 날지 못하고 병 속에서 그렇게 해고 있느냐?" "안에 들어갈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다. 문이 없는 데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 있겠느냐?" 이러거든요. 그 소리를 안에서 새가 듣고 그냥 나오고 싶으니까 나왔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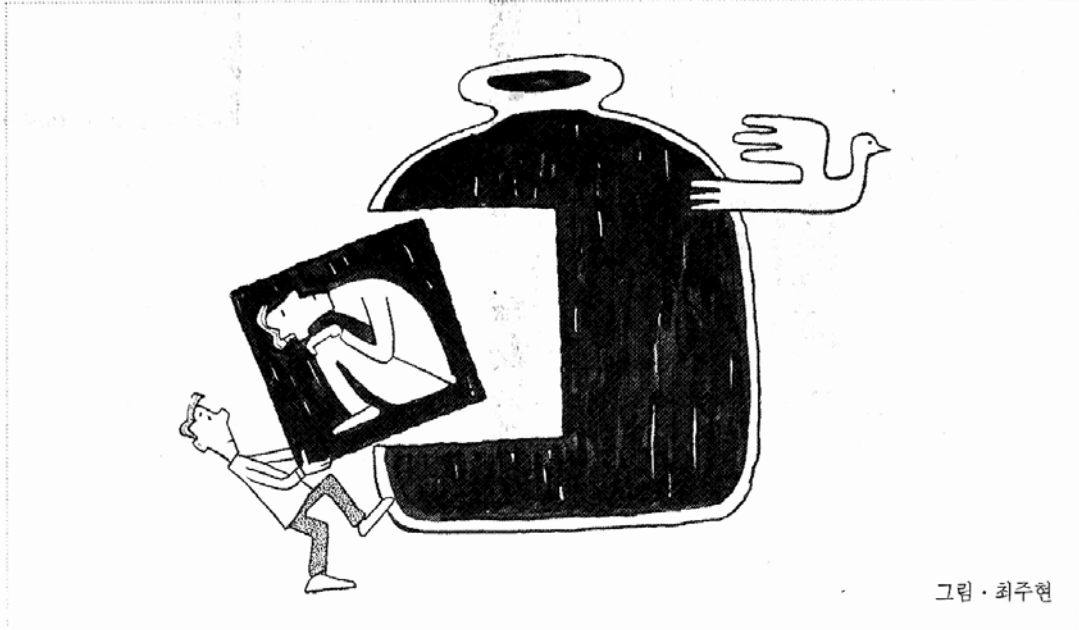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생각하는 대로 입력돼 법이 됩니다

### '관' 하는 도리 알면 분란 모두 해결

이거죠. 아난이 열쇠구멍으로 가습존자의 방에 들어가듯이, 이것이 이해가 돼야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항상 우물에서만, 요란한 우물에서 물을 떠먹으려고 한다면, 흐르는 샘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 되면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흐르는 샘물에서 떠먹어야 자유스럽게, 아무 기탄 없이,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심 몇 년이지, 십 몇 년을 추우나 더우나 산으로 돌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만 명의 조상님이 돌아가셨어도 하나니까 숫자를 따지지 말고 그냥 공심이다. 공생으로 살고 있다.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시니

간 공체다. 내가 맛이 있는 걸 먹든지 없는 걸 먹든지, 굶든지 먹든지 그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다. 이걸 말하면서든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그거를 속속들이 다 알기 위해서 열만큼 매진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남이 뭐라든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여자 남자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항상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 와서 탁 삼함이 돼야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차원이 얼마나 높느냐. 공덕이 많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 모두가 돌 아난 도리를 알아 이거죠. 어렵더라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살아온 그 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그냥... 뭐라고 말할 할까. 자기 근본을 믿으세요. 이걸 말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말이 땅에 떨어지느냐. 공법으로 들어가서 세세생생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수레바퀴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면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조상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맺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통틀어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인연이 됐다 이 얘깁니다. 만약에 이 방안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영이려면 겨자씨 하나 다 들어가도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음 겁니다.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말 하더라도 아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렇게 살지 말고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년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아... 왔다! 저 깊은 곳 내 존재의 근원

## 禪공학, 아바타 코스에 초대합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빼어난 수련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의식개발 프로그램 아바타로 뜻대로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 체험단편 >

- 지금부터의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어 기쁘다. ....(불교학 박사과정 수료)
- 내가 나이든가, 내가 나이든가? 사리분별 끊고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음이 잠시 장난이었던 것을... (제가 볼자)
- 건강과 행복을 재습득할 수 있다... 삼라만상이 모두 내 안에 만든 내 밖이었다. (약국경영)
- 내 삶의 창조자로서 모두를 포용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창조와 경험, 그것은 내 삶의 창조 방법. (기치로센터 운영)
- 뜻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 모두와 함께하는 기쁨, 환희(주부)
- 원치 않는 삶 끈, 원하는 삶 시작(연인)

▶ 주 최: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 아바타 센터  
 ▶ 홈페이지: www.myhome.netsgo.com/cdikr  
 ▶ e-mail: cdikr@netsgo.com  
 ▶ 장 소: 봉인사 한길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 기 간: 2000년 5월 24일 오전 11시 ~ 31일 오후 6시 (7박 8일)  
 ▶ 인 원: 20명 이내  
 ▶ 코스지도: 이상구, 오진은, 이재호 (아바타 마스터)  
 ▶ 참가비: 170만원 (숙식제공)  
 ※ 아바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 (숙식포함)  
 ※ 서울 경기지역 참가자는 봉인식 참가도 가능합니다.  
 ▶ 신 청: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아바타센터 (02)572-1673  
 봉인사 한길정진원 (0346)574-5585

###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 약사 여태원 저용 범주스님의

# 선식 감정콩

#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집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래보다 더 쓰더라니까"

온나무와 소나무의 꽃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꽃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감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물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을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적혀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꽃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여 그마저도 국산 꽃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중앙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감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허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양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지능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창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황토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기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마을에서는

▶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0671)634-0223  
 팩스: 0671)34-1237